

#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출고

- 기동력, 화력 및 방호력 보강으로 해병대 전투력 강화



◀ 삼성항공산업(주)는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를 개발 완료하여 출고식 행사를 가졌다. (右로부터 유무성 삼성항공 사장, 이대원 삼성항공 부회장,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유삼남 해군참모총장, 김영갑 국방품질관리연구소장)

▼ 선수익으로 해상 안정성을 증대시켰다



## 국방

품질관리연구소 주도로 삼성항공산업(주)에서 생산중인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출고식이 1997년 7월 18일 유삼남 해군참모총장과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이대원 삼성항공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항공 창원 제3사업장에서 열렸다.

이번에 생산된 상륙돌격장갑차는 현재 美해병대에서 운용중인 장비와 동등한 성능을 보유한 장비로 상륙작전 및 기계화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의 수륙양용 전투장비로서 기동력, 화력 및 방호력이 보강되어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상륙돌격장갑차는 스틸(Steel) 구조물로 제작된 LVT5로 지상 및 해상에서의 항속거리가 제한되고, 해상속도가 느리며, 정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늄(Al) 구조물로 제작된 LVT7을 개발하여 1970년대에 배치하였다.

한편, 1980년대 적 위협분석결과 상륙작전 및 기계화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LVT7으로

는 적 중무장부대(Heavy Armed Force) 제압이 제한되고, 152mm 고폭탄 파편 및 전투차량 탑재무기(30mm gun, 12.7mm machine gun, 14.5mm machine gun, etc.)에 대한 방호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 보병전투장갑차(BTR, BRDM, BMP, etc.)와 전장에서 조우시 생존성 보장이 곤란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현재 美해병대에서 운용중인 상륙돌격장갑차(AAV7A1)는 화력보강포탑(UGWS), 부가장갑키트(EAAK), 자동소화장치(AFSSS), 선수익(RBPK) 및 개량된 변속기를 탑재하여 구형장비 대비 화력, 방호력, 생존성 및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번에 생산 출고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는 총 중량 23.1톤에 24명의 병력과 전투장비를 탑재하고도 육상에서 시속 72km, 해상에서 13km의 기동이 가능하며, 특히 상륙함선에서 해안까지의 병력수송, 근접전투임무 및 기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의 수륙 양용 전투장비로서 올 연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삼성항공에서 금번 출고식을 가진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는 화력장비 및 통신장치등을 한국적 운용여건에 적합하도록 한국화한 장비로서 모든 성능이 美해병대에서 운용중인 장비와 동일한 장비이다.

국방품질관리연구소와 삼성항공은 유지부품의 원활한 국내조달을 위하여 생산 초기단



계부터 국산화개발 및 기존 국산품 적용에 최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장비에 대한 군수지원을 최대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의존에 의한 군수지원 한계를 극복하였다.

금번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의 국내생산을 통하여 기존장비에 대한 성능개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한국·터어키 방산협력회의 개최

- 방산물자 공동 생산 등 협력가능 사업 적극 검토

**국방** 부는 한·터어키 양국간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하여 한·터어키 국방부간 방산협력회의를 7월 28일부터 31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국방부 이청남 방위사업실장과 터어키 국방부 아르만 쿠롤루 경제 및 기술차관보가 공동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항공 전자분야 기술협력 방안과 탄약을 포함한 각종 방산 물자의 공동생산, 방산 및 군수협력 양해각서(MOU)체결 추진 등 양국간 상호 협력가능 사업들이 토

의되었으며,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터어키는 일부 분야에서 우수한 방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 참전 우방국이자 우리나라 방산물자의 주요 구매국임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터어키와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협력을 포함한 방산물자 공동생산등 협력가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국·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원회 열려

- 상호 정부차원 군수품 품질 보증 협정 체결

**한국** 과 필리핀 양국간의 군수·방산 분야협력증진을 위한 제3차 한·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이청남 방위사업 실장과 필리핀의 벨로 시설·군수차관보 공동 주재로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다.

한·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원회는 1994년 5월에 체결된 양국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매년 상호 교대로 개최하는 회의로 금번 제3차 회의시 한·필리핀 양국은 방산품

수출시 상호 정부차원의 품질보증을 제공키 위한 군수품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함정 왕래시 상호 군수지원 약정서 체결,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 참여, 필리핀 군용 항공기 엔진 창정비 수주 확대, 각종 탄약 판매(20미리 함포탄, 105미리 고폭탄, 2.75인치 로켓탄, 90미리 무반동총 고폭탄 등), 기타 방산협력 의제(차세대 무전기, 다목적 굴착기, 상륙 돌격장갑차 등)를 심층 협의하여 양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전쟁도발 대비 종합점검단 공식 출범

- 총력 대비태세 구축으로 북한 도발 야욕 사전 분쇄

**범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통합 방위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이 8월 1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종합점검단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주축으로 육·해·공군의 장성 및 영관급 장교 48명과 비기위, 내무부 등 17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32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었다. 단장은 합참 전력평가본부장인 최돈걸 중장(육사 21기)이, 부단장은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신원배 해병소장(해사 20기)이 겸무케되었고, 군사대비 분야를 주로 점검하게 될 제1부장에는 변상복 준장(육사 28기)이, 동원분야를 주로 점검하게 될 제2부장에는 이상신 소장(갑종 197기)이, 전시군수와 피해 통제분야를 주로 점검하게 될 제3부장에는 박기준 소장(학군 5기)이 맡았다.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종합 점검단은 주로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북한군의

장거리포, 화학무기 등 5대 위협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이를 조기에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도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 대비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종합점검단은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통합방호태세의 보완 방향을 심층 발전시키게 된다.

한편 발족식 발표문을 통해 최단장은 “종합점검단의 향후 활동은 먼저 분야별 계획검토와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분야를 망라한 종합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방향을 도출,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군과 비상기획위원회가 각각 발전시켜온 군사대비계획과 정부지원계획의 연계성, 통합성을 보완 발전시켜 민·관·군 총력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야욕을 사전에 분쇄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97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열려

- 해군력, 해양경찰력 강화는 21세기 최우선 과제



◀ 미국의 Mark. J. Valencia 하와이대 동서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동해해역이 비교적 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환경보호 지역 중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이 근해 및 운해 개발에 협력하면 경제의 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간 밀접한 관계를 표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해군

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힐튼호텔에서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유삼남 해군참모총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의 학자 및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 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97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해양시대의 개막과 해양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아·태 지역 정세와 주요국의 해양전략」, 「영유권 분쟁과 배타적 경제수역」, 「아·태 지역 다자간 해양협력 방안」, 「국력과 해군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11개의 논문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해의 직선 기선을 설정하여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등 한·일간 어업협정 문제가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해양 안보의 중요성 및 그 역할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외교안보원 이서항 교수는 아·태지역의 해양 신뢰구축의 한 방법으로 해군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아·태지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특히 해

군력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국민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해군이 중심이 되는 해양협력은 정치·경제안보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우리 주변국들의 해양전략 등에 관해 각국의 해양전략 전문가들로부터 그 견해를 직접 들어봄과 동시에 폭넓은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 해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관계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21세기는 분명 「바다의 세계」이며 우리는 새로운 바다경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현재의 우리 해군력이나 해양경찰력 등 군사력 면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이며 따라서 우리의 해양관리 역량 강화는 21세기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해양력을 일구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문 PP.76~87 참조)

# 제 5 차 방위력 개선 사업 승인

## \* 대구경 다련장(MLRS/ATACMS)

야전군이 적지에 대한 중심타격능력을 보유토록 장사거리를 가진 대구경 다련장 무기체계를 해외구매를 통해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집행승인된 사업예산은 총사업비로 약 3,000여 억원이며, 주장비 및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일괄 승인됨에 따라 향후 수개년간에 걸쳐 집행이 이루어진다.

제작회사는 美 "록히드-마틴"사로, 장비구성은 로켓탄(MLRS)과 미사일(ATACMS), 그리고 발사대와 탄약운반차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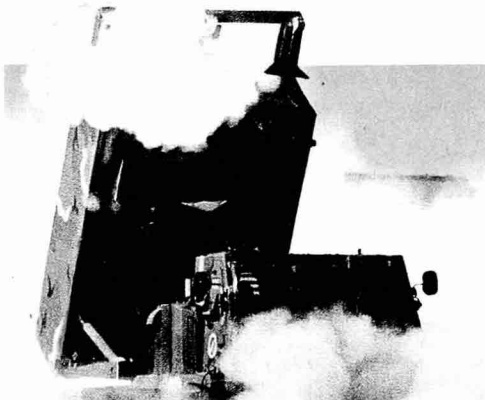
화력으로는 발당 수백개의 자탄을 목표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일시에 약 축구장 4배 면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한 파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목표물 위치를 파악후 근실시간내에 사격이 가

능토록 사격지휘 체계와 연동되어 작전운용된다. 전력화시 기대효과로는 일 정지역내 배 치되어 있는 적 기갑, 기계화 및 포 병부대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사시 수 도권 안전을 보장하 는 중



능토록 사격지휘 체계와 연동되어 작전운용된다. 기대효과로는 일 정지역내 배치되어 있는 적 기갑, 병부대 위협에 대한 이 확보됨으로써 유 도권 안전을 보장하 요한 수단이 되며,

▼ ATACMS 지대지 미사일



또한 평시에는 적지에 대한 중심타격수단 보유로 전쟁 억제능력이 크게 신장된다.

## \* 『전차장 열상장비』 연구개발

현 K-1전차에 장착된 전차장조준경에 비해 성능이 보다 향상된 신형장비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약 7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전력화시는 적의 방어연막이나 야간상황하에서 보다 정확한 표적포착 및 사격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전천후 임무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 \* 『항공기 관제 및 공역 통제 레이더』 사업

지상군이 보유한 각종 항공기에 대한 비행추적 및 통제를 하기 위한 「항공 관제 레이더」와 수도권 공역에 대한 항적감시 및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역 통제 레이더」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 • 『항공 관제 레이더』

약 180여 억원을 투자하여 장비 0대를 다년간에 걸쳐 확보하는 사업으로 장비 제작사는 美 "ITT"사이며, 전력화시 전투지역내 항적추적 및 비행통제능력이 확보됨에 따라 주·야간 구분없는 항공 전투활동과 생존성 향상이 보장된다.

### • 『공역 통제 레이더』

약 60여 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에 대한 현용 공역 통제 레이더를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력화시 초경량항공기 비행활동 증가등과 같은 수도권 공역의 작전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수도권 공역에 진입하는 모든 항적에 대해 정밀한 감시 및 통제능력이 확보되고, 방공무기 작전통제의 신속성이 증진됨으로써 북한의 공중 기습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 『장갑차』 구매사업

• 『지휘용 장갑차』

고속기동작전을 수행하는 기갑/기계화부대에서 운용할 지휘용 장갑차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연구개발 후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무기체계로 채택됨에 따라 처음으로 육·해군용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약 30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장비 제작사는 “대우중공업”이며, 전력화시 기동력, 방호력, 지휘통신기능을 모두 갖춘 장갑차가 지휘용으로 운용됨으로써 지휘관이 전방기동부대와 근접된 지역에서 적시적인 전투지휘 및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 『기지방어용 경장갑차』

공군의 현용 기지방어 장갑차(CM6614)를 신형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방산품인 한국형 경장갑차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비행기지 특성에 맞도록 일부 장비형상을 변경 후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에 장비 00대 확보를 위해 약 40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생산업체는 “대우중공업”이며, 전력화시 비행기지 방어능력에서 기동력이 크게 증진됨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병력이동 및 화력집중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현용장비에 비해 탑재화력이 보완되어 AN-2 등 적 저속항적에 대응할 수 있는 대공화력이 크게 신장된다.

\*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

현대 전자전 상황하에서 지속적인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전자전 환경을 제공하는 훈련장비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주장비를 캐나다(OMEGA사)에서 구매하기 위해 약 7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으며, 전력화시 해상작전의 주요 위협요소인 대함유도 무기를 포함한 각종 레이다파에 대해 평시훈련시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전자전 상황하의 해상전투력이 크게 향상 된다.

\* 『소해함 장비 및 전투함 탄약』 사업

• 『소해함 관급장비』

해군은 함정 건조사업 특성상 건조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장비를 연도별로 집행승인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기승인되어 건조중인 소해함에 필요한 정밀항법장비 1종을 해외구매토록 약 3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 『전투함 탄약』

전투함에 탑재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에서 사용할 전투탄약 1종을 해외구매하는 사업으로, 탄약 0만발 구매를 위해 약 8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이번에 구매할 탄약은 대함, 대항공기, 대유도탄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고 있다.

\* 『공군사업』

• 『T-59항공기 시운전 장비』

공군에서 고등훈련기로 운영중인 T-59항공기의 엔진 창정비시 성능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를 해외구매하는 사업으로 약 3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장비 제작사는 독일 “STN”사이며, 전력화시 현재 영국에서 외주 창정비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비용,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게 됨에 따라 군수지원의 자축성과 항공기 가동률 증진을 획득하게 된다.

• 『야간표적 지시기』

주요 작전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야간 지상 작전시 소총에 장착하여 조준사격이 가능토록 해주는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장비 000대를 구매토록 약 5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 『방공 경보장비』

현재 운용중인 전군에 대한 긴급 경보전파체계를 신형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약 20여 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전력화시 24시간 무중단 작전지원이 보장된 상태하에서 전군에 적기침투에 관련된 정보가 신속하게 방송으로 전파되어 작전 신뢰도 증진 및 통합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된다. **防**